

學校教育을 통한 人口 家族計劃 및 母子保健의 教育的 價値

李 時 伯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目 次〉	
I. 序 論	III. 人口家族計劃 및 母子保健의 教育的인 要求度와 價値
II. 社會發展 側面에서본 人口 家族計劃 및 母子保健의 意義	IV. 結 論

I. 序 論

1. 人口・家族計劃 및 母子保健에 관한 學校教育의 當爲性

學校는 教育과 研究의 기능을 가진 특수한 社會組織이다. 새로운 科學的인 지식을 습득하게 할 뿐만아니라 집단 생활속에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상호협력할 수 있는 경험을 터득하게 하는 장소이다. 그러나 學校는 社會集團으로서 지식제공에 의한 人間開發이나 人間關係에 의한 人格 및 情緒發達을 個人 스스로의 체험과 책임으로 돌려 방치하는 자유방임적인 조직은 아니다. 모든 個人的 잠재능력을 學校目標에 따라 개발 향상시키며 명량하고 건전한 集團生活를 통하여 計劃的으로 個人이나 集團 社會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곳이다. 다시말하여 學校教育은 知識提供이나 學問發展만을 중요시하지 않으며, 이에 못지않게 國家發展에 이바지할 수 있는 個人的 精神開發, 意義改革 行動變化에도 큰 비중을 둔다. 그래서 學校는 이에 대한 역할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教育的인 目標을 설정하고 있다.

教育은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教育의 定義는 多樣한데, 教育의 범위, 가치, 그리고 기능을

두루 고려할 때, 「教育은 人間の 行動特性을 計劃的으로 變化시키는 것」(鄭, 1971)이라고 말하고 있어 學校教育의 目標은 결코 단순한 지식제공만이 아니고 個人的 社會的 적응이나 社會的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인력양성에 초점을 둔 學校教育의 役割을 강조한 것으로 재확인된다.

學校教育을 통하여 教育의 結果를 目標로 할 때는, 우선 어느 個人이든 社會가 要求하는 올바른 지식과 의식을 갖춘 人間資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과거 그들의 의식형성과정을 무시할 수 없다. 인간의 의식형성과정을 環境要因에 의거 살펴보면, 먼저 出生하면서 家族의 構成員으로서 家族의 影響을 가장 強하게 받는다.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받은 影響은 곧 그 個人的 의식이 바탕을 이루며 또한 그 個人的 社會的 特性을 나타내 주는 부분이 된다. 특히 個人이 어떤 사물에 대하여 사고하고 의식하는 문제인데, 예로서 男女役割區分에 대한 사고, 子女數에 대한 의식, 그리고 인간가치의 참여평등과 기회균등에 대한 文化的인 측면에서의 自我意識은 직접 家族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民族이라는 集團으로 볼 때는 그 국가사회의 文化적인 影響에 의해 형성된 특성으로 말 할 수 있으나, 個人水準에서는 역시 第1次 集團인 家族의 影響을 받는 個

人特性으로 지칭하여 家族의 영향력을 중요시한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個人은 家族을 떠나 외부세계에 노출되면서 또 다른 면에서 개인의 의식 형성에 변화를 준다. 외부인으로서 친구, 이웃, 학교동료 등과 같이 가장 빈번히 만나는 2次集團들인데, 個人은 이들 集團의 영향에 의해 人格적으로 情緒적으로 기존의 의식구조에 부가하여 변화되고 형성되어 간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人間은 결코 獨立인 存在가 되지 못하며 個人의 生活環境에 接해 있는 第1次集團과 第2次集團의 屬性에 대단히 유사한 相似性을 가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社會文化的으로 모든 국민이 거의 同質性을 가졌다고 한다. 그러나 同質性 文化集團에서도 教育을 目標로 하여 個人을 관찰 단위로 하여 볼 때는 역시 각 개인이 相互 다른 特性을 가지고 있다. 또 個人의 의식과 행동의 特性을 教育의 目標로서 變化시켜야 할 필요성에서 관찰한다면 우리의 家庭이나 우리 社會文化에서 얻어진 고쳐야 할 전통적인 의식이 개인의 속성으로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出產行態, 子女觀, 그리고 健康에 대한 意識이 그 대표이다. 이들에 대한 意識은 다분히 家族으로 부터 출발하여 크게는 個人의 屬性을 대표할 수 있는 社會文化圈의 영향을 받는데, 대부분의 경우 個人은 처음부터 個人의 태도와 행위에 教育的인 수정을 받지 아니한 이상 成人이 될 때까지 전통적인 관습대로 계속 유지해 나가게 된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學校는 두가지 側面에서 중요한 役割을 가진다. 첫째는 각자 다른 의식형성의 배경을 가진 個人이 모인 集團으로서 相互 人間關係를 유지하면서 個人의 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第2次集團의 役割을 가진다. 그래서 學校는 個人의 의식과 행동이 무의식중에 他人에 의해 수정될 수 있는 環境提供의 장소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둘째, 學校는 個人의 특성이 다른 集團을 대상으로하여 國家社會가 要求하는 人力資源을 生産하는 教育의 장이기 때문에 건전한 인격과 意識을 고취시키기 위한 教育의 役割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計劃되고 분명한 學校教育의 目標가 중요하며 이 目標達

成을 위하여 고안된 교과과정개발 또한 教育의 中心이기도 하다.

앞서 教育의 의미를 나타낸 정의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의 教育을 國家社會 發展에 기여할 수 있도록 人間의 行動特性을 變化 유도하는 計劃된 過程으로 해석한다면, 人口·家族計劃 그리고 母子保健은 現 우리社會가 가지고 있는 현실문제이기 때문에 이에대한 問題意識 및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學校教育의 要求度는 높다 하겠다.

특히 人口·家族計劃 그리고 母子保健에 관한 意識은 처음부터 學校教育을 통하여 습득되고 형성된 것이 아니고 家族環境으로 부터 우리 고유의 文化特性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影響을 받아 형성되어온 代表的인 社會屬性이다. 따라서 이에대한 수정이나 올바른 사고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學校에서 計劃적으로 特性變化를 위한 教育過程이 필요하다. “子女의 가치는 무엇인가?, 子女의 數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子女數와 家庭福祉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健康의 의미는 무엇이며 母子保健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우리社會 經濟發展에 人口成長이 주는 意味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들 문제에 대하여 개인의 어떤 태도와 행동이 요구되는가?” 등등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個人의 지식뿐만아니라 의식과 行動의 變化가 현실적으로 要求된다.

그러나 人口規模의 過多에서 파생된 人口問題와 人力資源 開發을 혼동하여 人口調節의 目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전통개념, 多子女觀과 小子女觀의 차이, 男女의 役割과 機能을 혼동한 무작정 性差別意識, 性에 대한 無知에서 발단된 靑少年들의 異性問題, 家族健康 측면에서의 母子保健等 우리나라 社會國家發展을 위해 해야 할 구체적인 學校教育의 과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들 영역에 대한 집단의 건전한 의식형성과 행동변화를 위한 教育의 重要性을 생각할 때 學校教育의 役割로서 計劃인 教育은 무엇보다 重要하다. 學生들의 기존 의식은 個人의 特性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거나 아니면 價値基準이 분명하지 않는 상태에 있을수도 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스러운 實踐計劃으로서는 상당수의 學生들이 지금까지 家庭文化 속에서 형성되어온 人口家族計劃 및 健康에 대한 意識이 社會文化圈의 影響으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아 가능한 조기단계에 올바른 意識化가 이룩될 수 있도록 教育하는 것이다.

學校라는 社會組織속에서 최초의 共同生活을 통해 社會問題를 배우는 初等教育過程에서 부터 시작하여 集團의 規範을 익히고 「나」라는 自我中心의식에서 「우리(국가사회)」라는 公同의 責任意識을 計劃적으로 터득할 수 있게 하며 또 기존 自我中心意識을 社會國家 차원에서 더욱 강조하는 高等學校過程에까지 이 分野의 學校教育을 지속화 시켜야 한다. 즉, 多子女觀은 個人인 「나」로서는 選好될 수 있다하더라도 「우리」라는 社會 또는 國家次元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배우게 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經濟社會發展을 추구하는 國家理念이 존재하는 이상, 人口家族計劃 그리고 母子保健은 學校教育過程의 領域으로서 그 重要性이, 오늘의 한 시대로서만 요청되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보다 일관성있고, 教育의 實効性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教科過程은 더욱 補強되고 評價되며 계속 遂行되어야 한다.

2. 社會發展 側面에서본 人口·家族計劃 및 母子保健의 意義

地域社會 내지 國家次元에서 社會發展計劃을 논할 때는 所得向上을 우선으로 하는 經濟開發과 社會福祉向上을 追求하는 社會開發概念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험으로서는 1960年代 初부터 多數의 國民들이 겪고 있던 貧困의 問題를 優先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소득수준의 향상을 목표로 한 經濟成長 政策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그 후는 經濟成長의 惠澤을 모든 社會階層에게 公平하게 配分하므로써 社會的 安定을 도모하는 동시에 教育, 住宅, 醫療等 國民의 基本수요를 充足시킬 수 있는 政策 및 制度 開發을 추진해 왔다. 특히 1970年代 후반 國民들의 所得水準이 크게 向上되고 國民들의 福祉欲求 또한 증대함으로 해서

第4差 5個年計劃 以後에는 구체적인 社會開發計劃이 樹立되었으며 1980年代 부터는 본격적인 社會保障制度의 擴充을 통한 社會開發사업을 推進해 왔다.

國家 社會의 어느 發展計劃에서도 마찬가지로겠으나 經濟社會開發段階에서는 또 이러한 計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人口計劃이 先行되어야 함은 이미 先進諸國의 社會발전모형에서 보여준 바 있다.

人口計劃이라함은 經濟社會發展計劃에 알맞는 適正水準의 人口規模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人口의 특징으로서 人口의 成長과 構造가 開發計劃에 부합되어야 하는 조건이 요구된다. 즉, 長期的인 人口學的 目標에 따라 人口成長은 鈍化되어야 하며, 人口構造 또한 經濟社會發展에 阻害요인이 되지 않도록 이상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오늘날 많은 先進國家들이 전부 社會環境資源이 풍부하여 先進國家가 된 것이 아니라 비록 자원이 부족한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人口學的으로 人口成長과 人口構造面에서 發展에 유리한 條件으로 큰 힘을 입은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로 관찰하건데 經濟社會적으로 發展된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人口成長率이 1「퍼센트」이하가 아닌 나라는 없으며, 또 반대로 經濟社會적으로 후진된 나라치고 人口成長率이 높은 2「퍼센트」수준이나 또는 그 이상이 아닌 나라는 없다. 人口成長率이 높다는 사실은 1年동안에 어린이 숫자가 불어난다는 해석으로서 높은 人口成長率에 해당하는 소비인구의 크기가 그만큼 커진다는 말이다. 이들 人口成長率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은 生産年齡에 진입하는 15年이상까지, 순수 消費階層으로서 결국 15年동안은 社會國家에 부양의 부담을 준다. 따라서 人口成長率이 높은 경우는 經濟社會的인 能力이 부족한 나라로서 당장의 發展에 장애가 되지 않을 수 없어 이를 저하시키기 위한 家族計劃이 必要하다.

또 人口構造에서도 先進國家와 開發途上國家間의 차이는 뚜렷하다. 先進國家는 生産活動을 할 수 있는 15~64歲集團이 全體人口에서 차지하는 比率이 높다. 그러나 開發途上國家는 반대로 그 비율이 떨어져 非生産階層에 대한 扶養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人口構造가 가지는 意味는 生産活動과 生産活動을 하지 못하는 年齡層間의 比率로서 결정되는 生産年齡層은 人口學的으로 15~64歲까지를 말한다. 그리고 非生産年齡層은 15歲未滿 人口와 65歲以上の 人口層을 합한 것이다. 生産年齡層이 全體人口에서 차지하는 比率이 큰 것은 그만큼 그 國家社會의 生産活動이 活發할 수 있는, 經濟的으로 發展할 잠재력이 높은 國家로 지칭한다. 반대로 전체인구에서 非生産年齡層이 차지하는 比率이 상대적으로 클 경우에는 곧 그 國家는 消費가 많고 이들에 대한 扶養負擔이 커서 결국 國家經濟社會發展이 어렵다고 해석된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오늘날 대부분의 開發途上國家에서는 經濟發展을 위한 목적에서 政策的으로 調節管理가 가능한 15歲以下 非生産年齡集團의 比率을 저하시키는데 出產調節手段으로서 家族計劃事業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아무리 文化發達의 역사가 길고 또 훌륭한 文化傳統을 가진 國家라 할지라도 人口成長率이 높고 15歲未滿 幼年集團이 큰 불리한 人口學的 與件下에서는 결코 經濟社會發展이 이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다 하겠다. 그래서 開發途上國家에서 經濟社會發展을 조성하거나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人口·家族計劃事業과 開發計劃은 반드시 同一次元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한편 經濟發展과 병행하여 社會發展側面에서 母子保健의 意義를 찾는다면 그것은 健康을 뜻한다. 一般的으로 國民의 資質이라고 말할 때는 크게 나누어 두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社會的인 資質이며 둘째는 生物學的인 資質이다. (李, 1986) 社會的인 資質은 教育을 통해 이룩한다고 보며 生物學的인 資質은 健康을 통해 成就한다. 國民의 資質을 向上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國家나 健康의 重要性을 부인할 수가 없다. 個人 또는 國民 누구나 社會的으로 滿足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 근본의 하나가 健康條件임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健康에 대한 學校教育이나 社會教育을 重要視한다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위한 努力은 실제적으로 先進國家일 수록 많이 하고 있

다. 一般的으로 體育振興을 통해 國民의 몸과 마음이 健康할 수 있다고 믿어 이를 社會政策으로 강조하고 있으나, 실은 人間의 健康은 후천적으로 體育振興에 의해 개선되기보다 근본적으로는 健康한 어머니 몸에서 임신이 되고 또 출생하여 어느 年齡까지 健康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 주는 保健學的인 管理가 있어야 정말 健康해질 수 있다.

이러한 총체적인 과정을 지칭하여 母子保健領域이라 할 수 있으며, 그래서 健康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는 母子保健에서 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다.

健康에 대한 母子保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이상과 같이 이해할 때 母子保健은 또 다른 側面에서 人口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즉, 母子保健의 상태는 嬰幼兒死亡率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고, 嬰幼兒死亡率이 높은 나라의 人口構造는 三角形 모양의 전형적인 開發途上國家의 형태를 나타낸다. 이와같이 모양을 나타내게 되는 이유는 母子保健 상태가 나쁜조건에서 出生數 가운데 상당수의 嬰兒가 死亡하게 되어 결국 1年以後에는 당초 出生者보다 훨씬 적은 數의 幼兒만이 生存하게 되어 人口構造上 저변은 넓고 상위층은 차츰 좁아지는 모양을 나타낸 때문이다. 이같은 人口構造에서는 상대적으로 生産年齡層 보다 非生産年齡層이 차지하는 比率이 커지기 때문에 生産年齡層에 대한 부양부담을 加重시키게 된다. 부양부담이 큰 상태에서는 經濟社會發展이 잘될수 없는지라 결국 母子保健은 經濟開發側面에서도 重要하다는 結論을 유도한다.

3. 人口·家族計劃 및 母子保健의 教育的인 要求度와 價値

이상 人口·家族計劃 및 母子保健과 經濟社會發展과의 관계를 살펴보았거니와 學校教育에서 人口·家族計劃 및 母子保健에 대한 教育의 타당성을 현실적인 社會問題로서 판단해 보고자 한다.

먼저 人口·家族計劃의 教育的인 要求度는 우리나라 人口現實 및 人口의 裝來展望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현재 제한된 國土面積과 資源이 부족

한 상태에서 人口規模가 過多하다는 판단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비록 그동안 人口事業의 成功의인 결과로서 出產力이 低下되고 人口增加率 또한 경이적인 速度로 하강한 통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單位面積當 人口密度, 教育 및 就業의 機會, 住宅, 交通等 社會제반문제는 더욱 심각해간다.

<表1> 人口展望과 主要人口指標

年 度	총인구 (千)	人口增加率 (%)	人口密度 (km ²)	人 口 構 造(%)		
				0~14 歲	15~64 歲	65歲 以上
1985	41,056	1.25	414	30.6	65.2	4.2
1986	41,569	1.24	419	-	-	-
1987	42,082	1.21	424	-	-	-
1988	42,593	1.19	429	-	-	-
1989	43,099	1.16	434	-	-	-
1990	43,601	1.13	440	27.2	68.1	4.7
1995	45,962	0.94	464	-	-	-
2000	48,017	1.77	484	23.1	70.1	6.2
2023	52,574	0.00	430	17.2	70.3	12.5

더구나 人口增加率이 停止되는 2023년까지, 또 그 時點에서 人口成長이 停止된다 하더라도 그때의 人口規模 5,250萬名은 결코 적지 않은 過多人口임을 생각할 때 人口에 대한 問題의식을 教育을 통해 좀더 현실적으로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社會 一部 階層에서는 아직도 人口問題는 國家社會問題라고 생각하며 個人 家族單位에서는 多子女觀이 우위에 있어 社會國家의 人口意識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관찰할 때 人口教育의 必要性은 더욱 절실하다. 이러한 個人 및 家族單位에서 多子女數에 대한 의식이 社會國家 次元에서 要求하는 수준과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傳統文化의 影響이 아직도 強하게 作用하고 있다 하겠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教育的인 과제가 존재한다고 보겠다. 특히 多子女觀이 存在하는 가정에서 자란 子女에 대한 學校教育은 곧 그들 부모의 「子女觀에 대한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間접 目的에서도 필요하다.

한편 健康의 근본을 母子保健側面에서 강조한 바 있거니와 母子保健實態를 통한 이에대한 教

育의 必要性을 保健指標에서 찾아 보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嬰兒死亡率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嬰兒死亡率은 1985年 現在 出生 1,000名當 32.6(經濟企劃院, 1987)으로 아직도 대단히 높다. 이는 先進諸國에 比하여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인 母子保健狀態가 월등히 落後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表2> 嬰兒死亡率 水準의 各國比較(1982)

國 家	出 生 1,000名當	國 家	出 生 1,000名當
한 국	32.6*	홍 콩	12
일 본	7	이 태 리	13
스 웨 덴	7	이 태 리	13
미 국	11	소 련	25
영 국	11	마 레 시 아	29
불 란 서	9	필 립 핀	50
노 르 웨 이	8	멕시코	50
싱 가 폴	11	태 국	50

* 保健社會部, 保社統計年度, 1985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역시 學校教育을 통한 母子保健에 관한 知識과 健康의 概念整立이 꼭 필요함을 느끼게 한다. 嬰兒死亡은 어느 수준에서 예방 가능한 것이며 또한 낮은 嬰兒死亡에서는 出產率 또한 低下되기 때문에 母子保健教育은 保健增進과 人口學的인 與件造性이라는 두가지의 要求度를 함께 가지고 있다 하겠다.

현재 學校教育過程속에서 人口·家族計劃 및 母子保健에 관한 內容이 어느정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교과서내용 분석의 결과를 통해 살펴본다. 初中高等學校 教科書 전체 쪽수 11,157.6가운데 7.4%에 해당하는 825.0쪽이 人口 및 母子保健을 포함한 保健에 관련된 內容이며 그가운데 人口에 관한 內容은 전체의 1.8%, 母子保健家族計劃을 포함한 一般保健에 관한 內容은 5.6%이다. 이 교과서 내용분석의 결과 量的인 分析일 뿐 質的으로 필요한 內容이 어느 정도 깊이 또는 넓게(범위)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具體的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量的인 판단으로서 과연 充分한 內容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上급학교로 갈수록 보다 많은 量을 提供하고 있

다는 점에서 人口・家族計劃 및 母子保健의 教育에 대한 비교적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表3參照)

〈表3〉 初中高等學校의 교과서內容分析 結果
(단위: %)

區 分	전체쪽수	계	인구	母子保健 家族計劃	環 境	一般建設
國民學校	4,568	4.6	0.5	-	1.2	3.0
中學校	3,025.8	7.5	1.2	0.1	1.9	3.9
高等學校	3,568.8	10.9	4.1	1.0	1.9	3.9
計	11,157.6	7.4	1.8	0.4	1.5	3.7

나. 教育的인 價値

教育은 人間의 行動特性을 計劃的으로 變化시키는데 目的이 있다 하였거니와 이같은 變化의 유도는 問題의 意識化 그리고 教育的으로 바뀐 態度形成이 要求된다. 올바른 問題意識과 態度形成이 이루어져야 計劃된 行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階層에서 精確한 지식제공은 물론 行動特性的 變化를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리하여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여 初中高等學校 교과서에 인구・家族計劃 그리고 母子保健에 대한 內容을 전체 교과서에서 7.4「퍼센트」를 挿入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人口・家族計劃 및 母子保健에 관한 教育은 他 一般教育과 다른 教育的인 기대 효과가 있음을 먼저 지적하고자 한다. 一般教育 內容의 상당한 부분은 學生들에게 知識을 提供하고 그 知識에 따라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대하지만 人口・家族計劃 및 母子保健에 관한 教育은 知識의 提供과 함께 올바른 問題意識形成 그리고 態도의 변화 또는 行動의 變化를 최종 目標로 要求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유네스코」가 제시한 人口教育의 定義(“人口教育이라 함은 家庭, 地域社會, 國家 그리고 世界의 人口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인지하게 하므로써 人口問題에 대처한 個人的 합리적이고 책임성있는 態度와 行動의 變化를 가지게 하는 教育的 活動이다”)에서도 단순한 인구에 대한 지식제공을 강조한 것이 아니고 의식, 태도, 행동의 중요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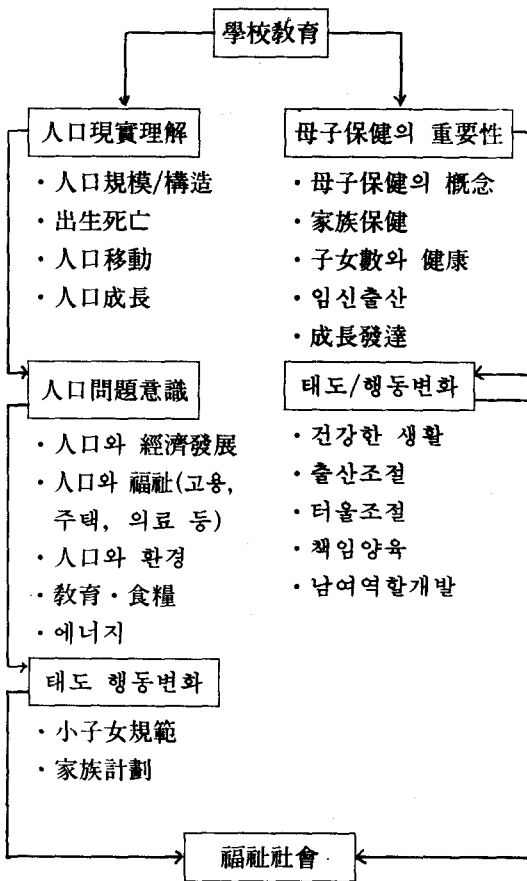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가 提示한 母子保健의 定義(“조직적인 地域社會의 努力을 통하여 어머니와 嬰幼兒의 疾病을 예방하고 이와함께 身體的 精神的 그리고 社會的인 安寧을 도모하므로써 수명을 연장한다”)에서도 역시 지식보다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點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學校教育을 통한 人口・家族計劃 및 母子保健에 관한 教育의 기대효과도 行動變化에 焦點을 둔 教育目標라는 點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시말하여 人口・家族計劃 및 母子保健에 관한 教育은 行動變化目標에 의한 教育이란 점에서 다른 一般教育과 區分된다. 이러한 行動變化에 目標를 둔 教育方針에 따라, 그 內容을 도해하면 다음(圖1)와 같다.

다음 圖解에서 지적하고 있는 內容에 따른 가장 一般的인 學校教育의 價値는 무엇보다 集團의 意識水準化를 들 수 있다. 비록 各個人은 가족배경이 다른 이유에서 人口・家族計劃 및 母子保健에 대한 影響力을 달리 받은 特性이 있다 하더라도 學校教育을 통하여 우리 社會가 要求하는 目標에 따라 모든 學生集團이 비슷한 意識構造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올바른 意識은 곧 우리 社會 全體에 波及될 수 있는 效果를 지닐 수 있는 것이다. 學校教育은 오랜 時間과 段階的인 過程을 要求하거나 社會發展의 근본이 教育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學校教育의 價値는 절대로 무시될 수 없고, 또 어느 의미에서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어 學校教育의 社會傳達效果는 낙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具體的으로 1986年末 현재 全人口의 25%에 해당하는 初中高 學生數에 대한 學校教育의 價値를 두가지 次元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時間的인 의미에서 長短期로 나누어 이들의 行動特性的 變化를 기대할 수 있으며, 둘째는 대상자에 따라 個人과 集團으로 나누어 各各 學校教育의 價値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두가지 次元은 사실상 상호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教育的 價値를 長短期로 대상자를 포함시켜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圖〉1. 學校教育을 통한 人口·家族計劃 및 母子保健의 內容과 기대



첫째 短期的인 側面에서 學校人口教育의 價値는 人口에 관한 知識으로서 오늘과 未來의 人口狀況을 知覺할 수 있다. 出生 死亡 移動에 관한 社會的 現象을 인식하는 동시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人口現實에 대한 이해력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人口狀況을 판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社會經濟發展에 攸關 人口가 미치는 影響이 어떠한지 把握할 수 있다. 食糧 및 에너지 問題의 근본적인 대책, 環境保全의 의미와 汚染의 심각성, 고용주택 그리고 醫療의 소요와 人口增加와의 關係, 人口와 教育의 質的向上等等 人口와 관계된 모든 社會問題를 의식하면서 共同의 努力으로서 할 수 있는 態度와 行動特性의 變化는 곧 小子女 家族觀確立일 것이며, 社會國

家的으로 볼 때는 人口計劃의 妥當性 또는 生産調節政策에 대한 呼應集團으로서의 役割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長期的인 側面에서 가질 수 있는 學校教育의 價値는 역시 人口調節 자체가 가진 만성적 社會現象과 같이 經濟, 健康, 價値觀確立 등 社會發展 전반에 있어서도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촉진현상으로 기대할 수 있다. 현재 初中高等學生들의 年齡은 7~19歲까지 分布되어 있고 이들이 家庭을 이루는 結婚年齡은 女子中心으로 하여 5~17年後일 것이다. 따라서 이만큼의 年數以後에 나타날 이들의 確實한 小子女觀意識의 結果는 家庭이나 社會에 미치는 影響力으로서 經濟 및 保健에 크게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한다. 出産力의 低下와 人口增加率의 감소, 死亡力의 下降(특히 영아사망률), 母性 및 子女의 營養상태 향상, 家族保健의 전반적인 增進等 福祉社會로 접근할 수 있는 與件이 造成될 것이다. 그리하여 西紀 2000年以後에는 그동안 推進해온 人口學의 目標대로 小子女觀의 社會規範化가 확실해지며, 이미 발표한 「2000年을 向한 國家長期 發展構想(韓國開發院, 1985)」대로 포괄적으로 擴大 실천이 可能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 學校教育을 통한 教育의 價値는 小子女觀과 健康에 대한 重要性을 인정하는 社會壓力集團으로서의 影響力을 확산시킬 수 있다. 全人口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學生數는 곧 우리나라 전체 家口의 약 70「퍼센트」에 屬해 있으리라 보여지기 때문에 學齡以前부터 미치고 있는 가정의 전통문화가 學生 各個人의 學校教育에 의해 도전을 받고 또 침투되며 修正될 수 있는 效果도 있다. 이것은 바로 社會集團의 힘으로 해석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個人水準으로 볼 때도 家庭環境이 다른 배경에서 形成된 個人의 文化的인 의식, 즉 小子女觀, 性選好等 個人의 特性은 學校教育의 同意와 지지를 받아 모든 사람의 기준으로 各個人도 同化될 수 있는 集團力學의 이론이 成立된다. 이것이 바로 學校教育의 큰 장점이며 價値로 평가될 수 있다.

4. 結 論

學校는 家庭文化의 배경이 다른 學生들을 共同的 目標에 따라 教育시키는 社會組織이다. 특히 人口·家族計劃 및 母子保健에 관한 意識形成은 상호 다른 家庭文化의 배경에서 個人의 特性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에 대한 學校教育은 集團力學의 이론과 教育原理로 보더라도 대단히 重要하다. 一般教育問題와는 달리 人口·家族計劃 및 母子保健에 관한 教育은 知的提供도 重要하다. 그러나 行動特性的 變化를 먼저 要求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文化的 特性에서 빨리 수정되기 위해서는 學習時期로 보아 初中高等學校때부터 빨리 人口 및 健康에 대한 意識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래서 學校教育의 價値로서 그들이 成長後 小子女 가정형성과 건강생활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人口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初中高等學校들이 國家社會가 要求하는 전전한 人口 및 保健意識을 가질 수만 있더라도 우리 社會 및 各 家庭에 미치는 影響力은 대단히 클 것으로 믿어 學校教育의 重要性을 제삼 강조하는 바이다. 그리하여 2000年代를 向한 國家發展에 기초가 될 수 있는 人口與件의 造成과 健康한 國民의 資質向上에 長期的인 기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문헌

- 經濟企劃院, 제6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 人口部門計劃(案), 1986.
- 經濟企劃院, 社會指標, 1987.
- 李時伯, 人口教育의 必要性, 학교인구교육을 위한 教育행정가 워크샵보고서, 韓國教育開發研究院, 1986, p. 39.
- 鄭範模, 教育과 教育學, 新教育學全書, 培英社, 1971.
- 韓國人口保健研究院, 初中高等學校 教科書의 人口 및 母子保健과 家族計劃 內容分析 研究, 1985. pp. 34-35.
- 韓國人口保健研究院, 母子保健學 活性化를 위한 政策立案者 세미나 報告書, 1985. pp. 74-77.
- Grant, J. P.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1982-1983. Oxford Univ Press, 1983. p. 10